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차자표기 연구

오 창 명*

차 례

1. 머리말
2.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차자표기와 국역본 해독의 오류
3. 차자표기의 해독
4. 미해독의 차자표기
5. 이두 표기
6. 마무리

1. 머리말

이 글은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에 보이는 차자표기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차자표기를 해독한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기획하고 있는 의궤류에 나타나는 차자표기를 해독하고 집성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의 하나이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는 조선 후기 악기 제조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악기조성청에서 있었던 전말을 기록한 의궤 중 하나로,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악기조성청의궤는 이것 외에도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제주대 교육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軌』와 『社稷宮樂器造成廳儀軌』 등이 있다.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는 1744년(영조 20) 10월 14일 밤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화재로 타버린 악기와 물품을 다시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악기조성청에서 있었던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1745년 5월 15일까지 새로 만든 악기들은 編鍾 32매, 編磬 32매, 敔 1, 磨 1, 照燭 1, 祝 1, 建鼓 1, 應鼓 1, 朔鼓 1개였고, 관리하였던 사람들은 장악원 제조 조관빈, 장악원 주부 송사흠·한명덕, 음률에 정통하였던 부사과 이연덕, 장악원정 이휘진이었고, 이들의 지휘 아래서 감역을 맡았던 악인들은 典樂 함덕형·강취성·전해담이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음악사 연구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吏讀文, 吏讀, 고유명사의 借字表記 연구 등과 같이 국어사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2.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차자표기와 국역본 해독의 오류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는 서울대 규장각도서관에 도서번호 14264번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은 1987년에 펴낸 『韓國音樂學資料叢書』(국립국악원) 권 23에 영인되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졌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 宋芳松과 高芳子 등이 『國譯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민속원)를 간행하여 더욱 알려졌다. 그런데 필자가 이 국역본을 검토하다가 차자표기 해독에 관한 오류를 여럿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차자표기가 달리 해독 또는 번역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의궤류의 차자표기에 관한 해독 및 연구 논문이 몇 편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해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차자표기에 대한 잘못된 해독 또는 번역은 국역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역본을 내는 연구자들이 차자표기에 관한 깊은 지식도 없이 함부로 의궤류를 번역해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문기관에서 펴낸,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쓴 글에서도 이러한 오류는 수없이 발견된다.¹⁾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송방송·고방자 외, 2000, 민속원)를 통하여 차자표기의 해독 오류의 예, 그리고 동일한 표기가 다르게 해독되거나 잘못 번역된 예를 몇 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²⁾

- ① 汗尔赤一介<17ㄱ> / 함마치(汗尔赤) 1개<78쪽>
 汗麻致二介<26ㄴ> / 한마치(汗麻致) 2개<89쪽>
 汗尔赤二介<84ㄴ> / 한마치(汗尔赤) 2개<165쪽>

예문 ①의 汗麻致와 汗尔赤은 ‘뺨마치>뺨마치’의 차자표기이다. 곧 뺨질용 마치를 이른다. 국역본에 보이는 ‘함마치’는 ‘한마치’의 오자로 보이고, ‘한마치’는 ‘뺨마치>뺨마치’를 잘못 해독한 것이다.

- ② 笏只輪桶朴達木一塊<17ㄱ> / 갈지바퀴통(笏只輪桶) 박달나무(朴達木) 1덩어리.<78쪽>

예문 ②에 보이는 笏只는 국역본에 보이는 ‘갈지’가 아닌 ‘갈기’의 차자표기이다. 예문의 笏只는 ‘갈기’로 읽어야 하지만, 그 뜻은 ‘갈키>갈퀴’의 뜻이다. 결국 ‘갈키>갈퀴’의 차자표기가 笏只로 쓰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문의 ‘笏只輪桶朴達木一塊’도 ‘갈퀴바퀴용 통박달목(또는 통박달나무) 1덩이’ 정도로 번역해야 한다.

- ③ 月乃莫只次薄松板一立<19ㄴ> / 월내(月乃)와 막지(莫只)감. 얇은 소나무판 2립<80쪽>
 月乃莫只次薄松板一立<21ㄱ> / 월내막지(月乃莫只)감: 얇은 소

1) 1997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에 들어있는 “都監儀軌 語彙 分析”이 그 단적인 예다.
 2) 먼저 원문을 제시하고 국역본의 번역을 제시하였다. 원문의 < > 안은 원문 쪽수와 앞면(ㄱ으로 표시), 뒷면(ㄴ으로 표시)을 나타낸 것이고, 번역문의 < > 안은 단순히 국역본의 쪽수만 표시하였다.

나무판 1넙<82쪽>

上下莫只次檜柄木五尺(19ㄴ) / 상하막지(上下莫只)감: 창자루목
(檜柄木) 5자<81쪽>

上下隅莫只次楸木長一尺二寸廣六寸(20ㄴ) / 위아래 모퉁이 막
지(隅莫只)감: 가래나무 길이 1자 2치, 너비 6치<81쪽>

隅莫只八立次引鉅松板八片(21ㄱ) / 우막지(隅莫只) 8개감: 톱으
로 자른 큰 소나무판 8조각<82쪽>

예문 ③의 月乃是 국역본에 보이는 ‘월내’가 아닌 ‘돌리’의 현실을 ‘돌
니’의 차자표기이다. 月乃[돌니]는 현대어 ‘다리’에 대응한다. ‘두 사물 사
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른다. 莫只는 국역본에 보이는 ‘막
지’가 아닌 ‘막이’ 또는 ‘막기’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月乃莫只는 국역본에
보이는 ‘월내와 막지’ 또는 ‘월내막지’가 아닌 ‘돌내막이’의 한자차용표
기이다. 이는 현대어로 ‘다리막이’가 되는데, 악기를 올려놓는 툴의 두 사
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이른다. 上下莫只는 국역본의 ‘상하막지’가 아닌
‘상하(또는 위아래)막이’의 한자차용표기이다. 隅는 ‘뿡’ 또는 ‘모롱이’의
훈독자 표기로, 현대어, ‘모’ 또는 ‘모퉁이’를 이른다. 그러므로 隅莫只는
국역본의 ‘우막지’가 아닌 ‘모막이’ 또는 ‘모롱이막이’ 정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현대어로 하면 ‘모퉁이 막이’(-널) 정도가 된다. 次는 ‘ㄹ숨’ㄹ
음)감’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立은 ‘넙’ 또는 ‘립’의 한자차용표기로, 납작
한 물건이나 목재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그러므로 예문의 隅莫只八
立次’는 ‘모막이(모퉁이막이) 널 8립의 감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④ 朴只三寸丁四十介(21ㄴ) / 박지(朴只)와 3치짜리 못 40개<83쪽>

예문 ④의 朴只는 국역본의 ‘박지’가 아닌 ‘박이’ 또는 ‘박기’의 차자
표기이다. 예문 朴只三寸丁은 차자표기를 그대로 해독하면 ‘박이(또는 박
기)세치못’ 정도가 되고, 번역하면 ‘박이용(또는 박기용) 세치못(길이가

세 치인 못)' 정도가 된다.

- ⑤ 加莫金排目具三十二介(18ㄴ) / 배목(排目)을 갖춘 가막쇠(加莫金) 32개(80쪽)
 大加莫金三十六介(82ㄱ) / 대가막금(大加莫金) 36개(162쪽)

예문 ⑤의 加莫金은 '가막금'이 아닌 '가막쇠'의 차자표기이다. 가막쇠는 한쪽 끝을 감아 고리못을 달고 다른 쪽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배목에 걸도록 만든 쇠로, 흔히 문짝을 잠그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걸어 끼운다. 排目은 '배목'의 차자표기로,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를 이른다. 그러므로 예문의 加莫金排目具三十二介는 '가막쇠(배목을 갖춘 것) 32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번역문은 원문 加莫金을 加莫金으로 잘못 썼다.

- ⑥ 建鼓一坐新造所入…月乃莖八介每介長三把半許(22ㄱ) / 곤고(建鼓) 1틀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품…월내경(月乃莖) 8개, 각각 길이 3발 반 가량(83쪽)
 朔鼓一坐…月乃莖三條每條長二把式(24ㄱ) / 삭고(朔鼓) 1틀…월내기둥(月乃莖) 3조 각 길이 2발씩(85쪽)

예문 ⑥의 月乃莖은 '돌니가지'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로 '다리가지' 정도가 된다. 이를 '월내경'으로 해독하거나 번역한 것은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莖을 '기둥'으로 번역하기도 했으나, 뒤에 오는 條(條의 약체자:이는 '오리'의 차자표기이다. '오리'는 나무 따위의 가늘고 긴 것을 이르는 말이다.)의 표기로 보아, '기둥'의 표기라기보다 '가지'의 표기로 보는 것이 옳다. 결국 예문 月乃莖八介每介長三把半許는 '다리가지 8개(각 개의 길이는 3발 반쯤)', 月乃莖三條每條長二把式은 '다리가지 3오리(각 오리의 길이는 2발씩)'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⑦ 者朴只十一介(83ㄱ) / 자박지(者朴只) 11개<163쪽>

예문 ⑦의 者朴只는 국역본과 같이 '자박지'가 아니라 '자바기' 또는 유사음 '자배기'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자배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⑧ 非只音金五十介(84ㄴ) / 비지음금(非只音金) 50개<165쪽>

예문 ⑧의 非只音金은 국역본과 같이 '비지음금'이 아닌 '비김쇠'의 차자표기이다. 좁은 틈을 비집어 헤쳐내는 데 쓰는 쇠를 이른다.

⑨ 古叱丁二十五介…串丁七十八介(84ㄴ-85ㄱ) / 꼬지못(串丁) 25개…꼬지못(串丁) 78개<165쪽>

예문 ⑨의 古叱丁은 '꽃정'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꽃을정'에 대응하는 말이다.

⑩ 飛乃壹百陸駄半(101ㄴ) / 비내(飛乃) 106바리 반<187쪽>

예문 ⑩의 飛乃是 국역본과 같이 '비내'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놀리'의 현실음 '눌리'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나래'에 대응하는 말이다.

다음은 원문 번역 상 문제가 된 것을 몇 개 지적한다.

⑪ 大櫓一部所入落目排目具一四面朴只次二寸丁五十介甘佐非四十介
丁具祝一所入四面朴只次二寸丁四十介甘佐非三十二介丁具星火
進排事<乙丑三月十五日:65ㄴ>

큰 궤짝 1벌에 쓰이는 낙목(落目), 배목구 14면, 박지감 2치 못 50개, 감좌비(甘佐非) 40개, 정구(丁具)와 축(祝) 하나에 들어가는 4면 박지감 2치 못 40개, 감좌비 32개, 정구(丁具)를 시급히 납품할 것<국역본 142쪽>

예문 ⑪의 원문과 국역을 비교해 보면, 번역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원문 落目排目具一四面朴只次二寸丁五十介는 “낙목(배목을 갖춘 것) 1, 4면박이감 두치못 50개”로 번역해야 한다. 곧 大橫 하나에 들어가는 것으로 낙목 하나가 필요한데, 그 낙목은 배목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大橫의 4면박기용으로 두치못 50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역본에는 “큰 꺾꽂이 1벌에 쓰이는 낙목(落目), 배목구 14면, 박지감 2치 못 50개”라고 번역하여 마치 낙목과 배목구가 14면이 필요하다고 번역하였다. 원문 甘佐非四十介丁具는 “감잡이 40개(못을 갖춘 것)”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런데 국역본에서는 감좌비 40개와 정구로 구분해서 번역해 버렸다. 더욱이 원문 祝一所入四面朴只次二寸丁四十介와 이 앞에 오는 甘佐非四十介丁具는 다른 것인데 “정구(丁具)와 축(祝) 하나에 들어가는...”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번역해 버렸다. 그리고 동일한 원문 四面朴只를 앞에서는 분리해서 번역하고 뒤에서는 하나의 합성어로 잘못 번역하였다.

위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큰 꺾 한 부에 들어가는 낙목(배목을 갖춘 것) 하나, 4면박이감인 두치못 50개, 감잡이(못을 갖춘 것) 40개, 축 하나에 들어가는 4면박이감인 두치못 40개, 감잡이 32개(못을 갖춘 것) 등을 빨리 바칠 것.” 정도가 된다. 앞의 국역본의 번역과 비교해 보면, 국역본의 번역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자표기의 해독과 원문의 번역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의궤류 국역본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은 유감이다.

3. 차자표기의 해독

3.1 加古里[갈고리]

彫刻匠所用加古里二介<66L>

加古리는 '갈고리'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갈고랑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중세어는 '갈공이>갈공이'로 실현되고, 근대어는 '갈고리'로 실현된다.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으로, 흔히 쇠로 만들어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쓴다. 加古리는 '가고리'로 읽힐 가능성이 있으나 '갈고리'의 차자표기로 보아야 한다. '갈'의 발음 '르'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료에서는 葛具伊·笈拘里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2 加乃[가늬]

役軍所用加乃光伊鑪各五介<89ㄴ>

加乃是 '가늬'의 차자표기로, '가늬'의 현실음을 표기한 것이다. 현대어 '가래'에 대응한다. 다른 자료에선 加來로 표기되기도 한다.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를 이른다.

33 加時木[가식나모]

加時木十條<42ㄱ>

加時木은 '가식나모'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가시목' 또는 '가시나무'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에는 '가시나무'를 '가시낭'이라 한다.

34 加兒[가위]

引導加兒各一<63ㄴ>

加兒는 '가늬>가위'의 차자표기지만, 근대어 '가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현대어 '가위'를 이른다. 중세어에서 '궁애>ᄃᄃ애>ᄃᄃ애'로 실현되고, 현대어에서 '가위'로 나타난다.

35 加耳[가귀]

加耳二介<87ㄱ> 加耳貳介<92ㄴ>

加耳는 '가귀' 또는 유사음 '가귀'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각귀' 또

는 '까뀌'에 대응한다. 한 손으로 나무를 찍어 깎는 연장의 하나로, 쇳날이 가로로 나 있고 자루와 직각으로 되었다.

36 刻丁[새김정]

刻刀參介刻丁伍介<92ㄴ>

刻丁은 '새김정'의 차자표기로, 새기는 정을 이른다.

37 良衣[간의]

條所壹百參良衣[裁折用還]<102ㄱ>

良衣는 '간의'의 차자표기로, 줄이나 바 따위를 세는 데 쓰는 수량단위 명사이다. '거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박성훈(1998:17)에서는 '거리'의 차자표기라 하였으나, '거리'의 차자표기로는 주로 巨里가 쓰인다.

38 芻只[갈기] 芻只金[갈기쇠·괘이쇠] 芻只丁[갈기정·괘이정]

芻只輪桶朴達木一塊<17ㄱ> 注匠所用橫子壹部…鎚丁貳介 竹刀芻只金各貳介<98ㄴ> 穿穴匠所用非背刃伍介…芻只丁肆介<98ㄴ>

芻只는 '갈기' 또는 '괘이'의 차자표기이다. 여기서 '갈기'는 '갈키'갈퀴'의 뜻이다. 결국 '갈키'갈퀴'의 차자표기가 芻只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문의 '芻只輪桶朴達木一塊'도 '갈퀴바퀴용 통박달목(또는 통박달나무) 1덩이' 정도로 번역해야 한다. 芻只金은 '갈기쇠' 또는 '괘이쇠'의 차자표기로, 갈이를 하는 쇠를 이른다. 芻只丁은 '갈기정' 또는 '괘이정'의 차자표기로, 갈이를 하는 정을 이른다.

39 甘佐非[감잡이]

甘佐非從實入 加莫金排目具三十二介<18ㄴ> 甘佐非丁具四介<20ㄱ> 大甘佐非一百十二介 中甘佐非二百十八介 小甘佐非三十介<81ㄴ>

甘佐非는 '감좌비'의 차자표기이지만, 현대어 '감잡이'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감잡이'는 '두 부재를 감아 목재의 이음을 보강하는 자 모양의

셋조각' 또는 '대문 문장부에 감아 박는 쇠', '해금의 통 밑에 대어 기둥 쇠를 고정하고 통을 보호하는 자로, 구부러진 쇠붙이'를 이르는 말이다.

3.10 巨里[거리]

小索十一巨里<76ㄱ> 雜長木柒百柒拾伍巨里內[伍十巨里實入 柒百貳拾伍巨里伍分之貳前排]<102ㄴ>

巨里는 '거리'의 차자표기로, '끈·새끼·철사 따위의 길이를 헤아릴 때, 열 발을 한 단위로 이르는 말' 또는 '나뭇가지나 오이, 가지 따위를 셀 때, 50개를 한 단위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3.11 巨乙介[겉개]

橫看巨乙介生布三尺<63ㄱ>

巨乙介는 '겉개'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겉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3.12 件[널]별]

磬家三十二件所入 每件青木各三尺式 內拱黃木各三尺式<19ㄱ>

件은 '널]별'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널'에 대응한다.

3.13 迭乃[줄니·즈니]

小爐匠所用吐木十六迭乃<30ㄴ>

迭乃是 '줄리]즈리'의 현실음 '줄니'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자래'에 해당한다.³⁾

州縣以鐵索束柴以量之曰 一二迭 無音義 只稱자래<叢葉記>(2. 迭) 迭 雜物不滿束 자래 거<字典釋要>

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한국한자어사전』(1996, 권4:336)의 迭 항목을 보면, "國義, 자래, 나뭇단이나 풀단 따위를 세는 단위"라 해 놓고, 迭乃 항목에서는 '거내'로 읽고 '거래'로 설명하고 있다. 박성훈(1998:31-32)에서도 迭 항목은 "자래, 자내의 차자표기"로 설명하고서는, 迭乃是 '거내'로 읽고, 迭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迭乃是 '줄니' 또는 '줄리'로 읽어야 하고, 현대어 '자래'에 대응한다.

떨나무 등의 나뭇단이나 풀단을 세는 데 쓰는 단위명사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줄레'라고 하여 남아 있다.

3.14 磬機[경틀]

磬機二介(66ㄴ)

磬機는 '경틀'의 차자표기이다. 경을 거는 틀을 이른다.

3.15 高音鐵[마음쇠·곰쇠]

高音鐵一百二十介(82ㄴ) 鍾石磬加莫金山支次高音鐵壹百貳拾介(92ㄱ)

高音鐵은 '마음쇠' 또는 '곰쇠'의 차자표기로, 어떤 재료를 만드는 데 드는 쇠를 이르는 말이다.

3.16 骨[골] 半骨[반골]

草線路洲軸半骨六尺(23ㄱ)

骨은 '골'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골'에 대응한다. 천이나 종이 따위의 얇은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서 오리거나 접는 금을 이르거나 접은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半骨은 '반골'의 차자표기로, 종이, 피륙, 천 따위의 반 폭을 이른다.

3.17 拱[감] 內拱[안감]

磬家三十二件所入 每件青木各三尺式 內拱黃木各三尺式(19ㄱ)

拱은 재료를 뜻하는 '감'의 차자표기이다. 內拱은 '안감'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안감' 또는 '안짚'에 대응한다.

3.18 光伊[광이]

役軍所用加乃光伊錘各五介(89ㄴ)

光伊는 '광이'의 차자표기이다. '광이'(鐵錘 광이<역해, 하:8>)는 '괘이'의 옛말이다.

3.19 菊花等[국화등] 菊花童[국화동]

沙卜丁二介菊花等具<22ㄱ> 加莫金菊花童具各壹介<100ㄱ>

菊花等は '국화등'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국화동자못'에 대응한다. 菊花童은 '국화동'의 차자표기로, 역시 현대어 '국화동자못'에 대응한다. 국화동자못(菊花童子-)은 머리가 국화 모양으로 된 장식 못으로, 문짝이나 난간 따위에 장식용으로 박는다. 다른 자료에서는 菊花槿, 菊花同으로도 쓰인다.

3.20 金·釧[쇠] 加莫金[가막쇠] 笏只金[갈기쇠·갈이쇠] 舉乙金·舉金[걸쇠] 舉乙鎖[걸쇄] 沙巨鎖·沙舉乙鎖·沙梃鎖[사걸쇄] 非只音金[비길쇠] 登子金·鍍子金[등자쇠]

大加莫金三十六介…小加莫金十九介<82ㄱ-86ㄱ> 工匠所用…加莫金參介<91ㄱ> 豆錫匠所用申丁伍介鍾石磬加莫金山支次高音鐵壹百貳拾介<92ㄱ> 注匠所用橫子壹部…沙丁貳介 竹刀笏只金各貳介<98ㄴ> 樂器入盛橫子舉金二介<66ㄱ> 舉乙金十介 沙巨鎖三介<82ㄴ> 沙舉乙鎖一介<90ㄱ> 沙梃鎖貳介<97ㄴ> 非只音金五十介<26ㄴ> 非只音金五十介<84ㄴ> 鍍子金八介<86ㄴ> 登子金中沙各貳介<98ㄴ>

加莫金은 '가막쇠'의 차자표기이다. '가막쇠'는 '한쪽 끝을 감아 고리 못을 달고, 다른 쪽 끝을 갈고랑쇠 모양으로 꺾어 꼬부리어 배목에 걸도록 만든 쇠'(문짝을 잠그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걸어 끼움.) 또는 '편경(編磬)이나 편종(編鐘)을 거는 틀에 경쇠를 걸기 위해 박아 놓은 쇠 고리'를 이른다. 笏只金은 '갈기쇠' 또는 '갈이쇠'의 차자표기로, 갈이를 하는 쇠를 이른다. 舉乙金은 '걸쇠'의 차자표기이다. 舉乙鎖는 '걸쇄'의 차자표기로, '걸쇠'에 대응하는 것이다. 沙舉乙鎖는 '사걸쇄'의 차자표기로, '사걸쇠'에 대응하는 것이다. 沙巨鎖는 '사걸쇄'의 차자표기로, '사걸쇠'에 대응하는 것이다. '걸'의 말음 'ㄹ'은 표기에서 생략한 것이다. 沙巨鎖와 沙舉乙鎖의 沙는 '사슬(鎖 鑰 今俗呼鐵鎖 사슬 鑰鑰也 又鎖子 卽 鎖쇠<사해-중, 하:28>>)사슬'의 일부 음 '사'의 음가자 표기이다. 『탁지준

철』에서는 沙鬪鎖로도 표기되었다. '걸쇠'는 문을 잠글 때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으로 된 쇠를 이른다. '사걸쇠'는 사슬을 이어 붙여 만든 걸쇠를 이른다. 非只音金은 '비김쇠'의 차자표기이다. 좁은 틈을 비집어 헤쳐 내는 데 쓰는 쇠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非倚音金·非禁金·非音金·非只音鐵·飛只音金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橫鐵十五介(87ㄱ) 예문에 보이는 橫鐵이 '비김쇠'에 대응하는 한자말로 보인다. 登子金·鐙子金은 '등자쇠'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감잡이'에 대응한다. 등자(말을 타고 앉아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 안장에 달아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린다.) 모양으로 만든 쇠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鐙子釧로도 표기된다.

321 老味[노미]

貴廳大旗手崔福老味亦以耳只匠今方付役是如乎(33ㄱ)

老味는 '노미'의 차자표기로, '놈'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322 多繪[다회] 同多繪[동다회]

多繪纓子次眞紅糸六錢(19ㄴ) 廳上下同多繪方兀次紙金二片(64ㄴ)

多繪는 '다회'의 차자표기로, 실로 뿔아 만든 띠를 이른다. 同多繪는 '동다회'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동다회'에 대응한다. '동다회'는 단면을 둥글게 짠 끈목을 이르는데, 한국 매듭에 주로 쓰며, 노리개, 주머니끈, 각종 유소(流蘇)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323 端骨[단골]

上下端骨段二尺五寸(20ㄴ)

端骨은 '단골'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단골'에 대응한다. 지붕마루를 틀 때에 수키와 사이를 이르거나 기왓고랑에 막아 대는 반 동강의 기와를 이른다.

324 大工[대공]

大工次小椽木壹介(96ㄴ)

大工은 '대공'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대공'에 대응한다. '대공'은 들보 위에 세워져 마룻보를 받치는 짧은 기둥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大共, 臺工 등으로도 표기하였다.

325 大也[대야]

坐起時 所用地衣登每毛方席安息要江大也唾口<57ㄴ>

大也는 '대야'의 차자표기이다.

326 大貼[대답]대접>대접] 沙大貼[사대답]사대접>사대접]

沙大貼十二立<83ㄱ>

大貼은 '대답'>'대접'>'대접'의 차자표기이다. '대접'에 대응한다.

327 道乃[돌애>돌내] 道乃鐵[돌내쇠]

道乃鐵二介<87ㄴ> 道乃鐵貳介<94ㄱ>

道乃是 '돌애'의 현실음 '돌내' 또는 변음 '도내'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도래'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道乃鐵는 '돌내쇠'의 현실음 '돌내쇠' 또는 변음 '도내쇠'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도래쇠'에 대응하는 말이다. '도래'는 '문이 저절로 열리지 못하게 하는 데 쓰는 가름한 나무 메뚜기'를 이르고, '도래쇠'는 '바퀴 따위를 끼워서 돌아가게 된, 쇠로 만든 둥근 모양의 부속품(메뚜기)'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道乃金으로도 표기된다.

328 道里[도리] 上道里[웃도리] 柱道里[기둥도리] 東道里[동도리]

上道里八介次中條里木四介<21ㄱ> 庫間一間所入柱道里樑椽並中椽木二十四介<90ㄱ> 建鼓一坐新造所入...東道里次多紅路洲紬四尺五寸<22ㄴ>

道里는 '도리'의 차자표기이다.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혀서 서까래를 받치는 나무'를 이른다. 上道里는 '웃도리'의 차자표기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중도리'라고도 한다. '둥자기둥에 얹어서 서까래나 지붕 널을 받치는 가로재'를 이른다. 東道里는 '동도리'의 차자표기이다. '둥근

도리'를 이른다.

329 同[동] 疋[필] 尺[자] 寸[치]

木十八同四十疋十九尺二寸<76> 同은 '동'의 차자표기로, 피륙 50필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이다. 疋은 '필'의 차자표기로, 피륙을 세는 단위이다. 尺은 '자'의 파자표기로, 피륙을 재는 단위이다. 寸은 '치'의 차자표기로, 피륙을 세는 단위이다.

330 童子[동자] 童子柱[동자기둥]

童子柱三十二<18> 建鼓一坐新造所入…童子四次楸木各長三寸五分<22
ㄴ>

童子는 '동자'의 차자표기로, '동자기둥'에 대응하는 말이다. 童子柱는 '동자기둥'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동자기둥'에 대응한다. 동자기둥(童子-)은 들보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을 이르는데, 상량(上樑), 오량(五樑), 칠량(七樑) 따위를 받치고 있다.

331 東海[동해] 陶東海[달동해]질동해]

柒匠所用陶東海四<67>

東海는 '동해'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동해'에 대응한다. '동해'는 질그릇의 하나로, 흔히 물을 길는 데 쓰는 것으로써 보통 등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332 頭甲[두갑]

廳一部所入…頭甲次山柚子長四寸圓經一寸五分<19ㄴ>

頭甲은 '두갑'의 유사음 '두갑'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두갑'에 대응하는 말이다. '두갑'은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頭匣으로 표기된다.

3.33 豆里木[두리목]

毛老臺夷介所入 豆里木伍尺<94ㄱ>

豆里木은 '두리목'의 차자표기로, '등근 재목' 이른다.

3.34 豆之[두지]

樂器入盛中豆之二部<21ㄱ>

豆之는 '두지'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뒤주'에 대응한다.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로, 나무로 껍질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3.35 登每[등미]

坐起時 所用地衣登每毛方席安息要江大也唾口<57ㄴ>

登每는 '등미'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등메'에 대응한다. 등메는 형짚으로 가장자리 선을 두르고 뒤에 부들자리를 대서 꾸민 돛자리를 이른다.

3.36 登床[등상]

橋板登床各伍介<92ㄱ>

登床은 '등상'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등상'에 대응한다. 등상은 나무로 만든 세간의 하나로, 발판이나 걸상으로 쓴다. '등성이'라고도 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凳床으로도 쓰였다.

3.37 麻里[마리]

麻里次薄松板一尺<91ㄱ>

麻里는 '마리'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마루'에 대응한다. '마리'는 '마루'의 방언으로, 강원, 경상, 전북, 제주, 충청 등에서 실현된다.

3.38 𠵼赤[마치] 手丹𠵼赤·水丹𠵼赤[수단마치] 汗麻致·汗𠵼赤[땀마치]

汗𠵼赤三介 手丹𠵼赤三介<55ㄱ> 水丹𠵼赤九介<86ㄱ> 汗麻致二介<26ㄴ>

汗麻致二介<28ㄱ> 火地乃汗ㄱ赤各貳介<91ㄱ>

ㄱ赤은 '마치'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마치' 또는 '망치'에 대응한다. 手丹ㄱ赤·水丹ㄱ赤은 '수단마치'의 차자표기로, 마치의 한 가지로, 수단(水丹:중국 남방에서 만든 도료로, 동백기름에 안료를 섞어 만들며, 선박 및 목재의 방수용으로 쓴다. 빛깔에 따라 청단, 홍단으로 나눈다.)을 박아 넣는 마치이다. 汗麻致·汗ㄱ赤은 '뿔마치'뿔마치'의 차자표기이다. 뿔질을 하는 데 쓰는 마치를 이른다. 지금까지 汗ㄱ赤의 해독에 문제가 많았다.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1998:426)에는 汗ㄱ赤을 '떡마치'라 하고, '떡매'와 같은 말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더욱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한국한자어사전』(3권:94)에는 汗麻致와 汗ㄱ赤을 '한마치'로 읽고, '크기가 보통보다 큰 마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도 잘못이다. 이에 따라서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도 汗麻致와 汗ㄱ赤을 모두 '한마치'로 읽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황금연(1997:158-159)은 汗ㄱ赤을 '뿔마치'로 읽었다. 필자도 汗은 '크다'는 뜻을 가진 관형사형 '한'의 음가자 표기가 아니라 '뿔'의 유사음 '뿔'뿔'의 유사훈가자 표기로 본다. 汗의 원래 훈은 '뿔'(汗 뿔 한 心液也<훈몽-초, 상:15>)이지만, '째다(擘 擘 한 以藥固 金鐵令相着使不解也<훈몽-초, 하:7>)'의 명사형 '뿔' 또는 '저임'(擘 저임 질<물명 5:7>)의 불완전한 훈독자 표기로 쓰였다. ㄱ은 '마'의 음가자 표기, 赤은 '치'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래서 汗ㄱ赤은 '뿔마치'뿔마치'의 차자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른 자료에서는 汗磨致로도 실현된다.

3.39 罔致[망치] 方罔致[방망치]

木手造家匠等所用方罔致次眞椽木二介<60ㄴ>

方罔致는 '방망치'의 차자표기로, '방망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方ㄱ赤으로도 표기된다.

3.40 馬槽·磨造[마조]

募軍所用馬槽十部<56ㄴ> 磨造匠櫃子壹部<98ㄴ>

馬槽·磨造는 '마조'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연자매'에 대응하는 말이다. 마조장(磨造匠)은 연자매를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을 이른다.

3.41 莫子[막조]막자] 沙莫子[사막조]사막자]

沙鉢五立 甫兒一竹 沙莫子三介 所羅二坐<63ㄱ> 沙莫子三介<83ㄴ>

莫子是 '막조'막자'의 차자표기이다. 沙莫子是 '사막조'사막자'의 차자표기이다. '막자'는 덩어리 약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유리나 사기로 만든 작은 방망이를 이르고, '사막자'는 사기로 만든 막자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沙尔子로도 표기된다.

3.41 莫只[막이·막기] 隅莫只[모막이]

月乃莫只次薄松板一立...上下莫只次檜柄木五尺<19ㄴ> 隅莫只八立次引鉅松板八片<21ㄱ>

莫只是 '막이' 또는 '막기'의 차자표기이다. 上下莫只是 '상하막이' 또는 '위아래막이'의 차자표기이다. 隅莫只是 '모막이'의 차자표기이다.

3.42 網石·網席[멍석]

磨鏡匠所用中陶所羅六小陶所羅四網石二立<62ㄴ> 網席肆立<102ㄱ>

網石·網席은 '멍석'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멍석'에 대응한다. '멍석'은 짚으로 걸어 네모지게 만든 큰 깔개를 이른다. 흔히 곡식을 넣어 말리는 데 쓰나, 시골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깔아 놓고 손님을 모시기로 한다.

3.43 網兀[망울]

網兀貳百拾柒介<102ㄱ>

網兀은 '망울'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망엷이'에 대응한다. '망엷이(網-)'는 노끈으로 그물을 뜨듯이 엮은 물건을 이른다. 網兀[結裏米石者也]<조선중종실록>(96, 36년 11월 을사).

3.44 毛老[모로] 毛老臺[모로대]

匙匠所用毛老二介汗丁赤二介(59ㄴ) 毛老臺二介(88ㄴ)

毛老是 '모로'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모루'에 대응한다. 毛老臺는 '모로대'의 차자표기로, '모루대'를 이른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를 이르고, '모루대'는 모로를 올려놓는 대를 이른다.

3.45 毛湯[모탕]

造家匠所用櫛子壹部 毛湯壹介(98ㄱ)

毛湯은 '모탕'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모탕'에 대응한다. '모탕'은 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에 받쳐 놓는 나무토막을 이른다.

3.46 夢同·夢同伊[몽동이] 鉄夢同·鉄夢同伊[쇠몽동이]

鉄夢同伊一介(22ㄱ) 中夢同一介 小夢同六介(26ㄱ) 小夢同伊四介(47ㄱ)
石手所用小夢同壹 排地乃一 古叱丁召乙丁各五(56ㄴ) 鉄夢同一介(82ㄱ)

夢同은 '몽동이'의 차자표기로, 말음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불완전한 차자표기이다. 夢同伊는 '몽동이'의 차자표기이다. 鉄夢同은 '쇠몽동이'의 차자표기로, 말음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鐵夢同伊는 '쇠몽동이'의 차자표기이다. 鉄은 鐵의 속자이다.

3.47 尾里[밀이] 彥尾里[엇밀이] 彥尾里刀[엇밀이칼] 平尾里[평밀이]

大彥尾里刀三介...平尾里五介(87ㄱ) 彫刻匠所用大彥尾里刀參介(91ㄴ)

尾里는 '밀이'의 현실음 '미리'의 차자표기이다. 彥尾里는 '엇밀이'의 현실음 '언미리'의 차자표기이고, 平尾里는 '평밀이'의 현실음 '평미리'의 차자표기이다. '엇밀이'는 쇠붙이나 나무 바탕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데 쓰는 연장 또는 대패를 이른다. '평밀이'는 평면지게 밀 때 쓰는 연장이나 대패를 이른다.

3.48 朴只[박기] 手朴只[손박기] 朴只二寸丁[박기두치못] 朴只三寸丁[박기세치못] 手朴只貳寸丁[손박기두치못]

朴只三寸丁四十介<21ㄴ> 下板朴只次四寸丁頭二十五介<65ㄴ> 朴只二寸丁三十四介<90ㄱ> 手朴只貳寸丁貳介<91ㄴ>

朴只는 ‘박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박기’의 차자표기이다. 朴只三寸丁은 ‘박기세치못’의 차자표기로, ‘박기로 쓰는 세 치 길이의 못’을 이른다. 朴只二寸丁은 ‘박기두치못’의 차자표기로, ‘박기로 쓰는 두 치 길이의 못’을 이른다. 手朴只는 ‘손박기’의 차자표기이고, 手朴只貳寸丁은 ‘손박기두치못’의 차자표기이다.

3.49 朴鉄[박쇠]

正鉄朴鐵圓環丁具二介<74ㄱ>

朴鉄은 ‘박쇠’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박철(縛鐵)’에 대응한다. ‘박철’은 못을 박기가 어려운 곳에, 못 대신에 감치어 대는 쇳조각을 이른다. 朴鉄을 ‘박철’의 차자표기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자료에서 朴金[박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박쇠’의 차자표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박쇠’가 나중에는 ‘박철’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3.50 方兀[방울]

魔上下同多繪方兀次紙金二片<64ㄴ>

方兀은 ‘방울’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방울’에 대응하는 말이다.

3.51 排目[비목]배목]

排目六十六介<82ㄱ>

排目은 ‘비목’배목’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배목’에 대응한다. 배목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등글게 구부러 만든 고리 걸쇠를 이른다.

352 邊湯刀[변탕놀]

邊湯刀一介<87ㄱ>

邊湯刀은 '변탕놀'의 차자표기이다. '변탕(邊-)'은 목재의 가장자리를 곧게 밀어내거나 모서리를 턱지게 깎아 내는 대패(현대어로 '변탕대패'라 한다.)를 이르는데, 이 곳에 끼우는 날을 '변탕놀'·'변탕날'이라고 한다.

353 甫兒[보수>보으] 茶甫兒[차보수]

沙鉢五立 甫兒一竹 沙菓子三介 所羅二坐<63ㄱ> 茶甫兒二介…甫兒一竹<83ㄱ-ㄴ>

甫兒는 '보수>보으'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보시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보시기'의 경상도, 제주도 방언으로 '보시'를 확인할 수 있다. '보시'의 앞선 형태가 '보시'인데 이것이 '보수'의 방언형이라 할 수 있다.

354 鳳頭[봉두·봉머리]

鳳頭次椶木長一尺廣五寸厚二寸一介<20ㄴ>

鳳頭는 '봉두' 또는 '봉머리'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봉두고임'에 해당한다. 봉두고임(鳳頭-)은 전각(殿閣)의 기둥머리에 봉황의 머리 모양으로 새겨서 대는 꾸밈새를 이른다.

355 浮[솜>뚝] 張[장]

破油屯四浮一張<77ㄴ>草屯貳拾貳浮<102ㄱ> 浮는 '솜>뚝'의 차자표기로, 짚·띠·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을 세는 단위 명사이다. 張은 '장'의 차자표기이다.

356 飛乃[놀너]

改覆飛乃一駄半<90ㄱ> 滲漏處 改覆 所入 每間 飛乃壹駄式 用還次進排事<100ㄱ> 飛乃壹百陸駄半<101ㄴ>

飛乃是 '놀너'의 차자표기로, '놀러'에 현실음을 표기한 것이다. 중세어

는 '놀애'로 실현된다. 현대어에서는 '이영'의 충남, 함경방언으로 '나래'를 확인할 수 있고, 제주방언으로 '놀래, 느래, 느라미, 느래미, 느랍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이른다. 飛乃是 바로 제주방언의 '놀래'의 현실음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57 非非[비비] 非背[비비]비배] 非背刃[비비]놀]비배놀] 非非強鐵[비비강철]

非非強鐵五介<55ㄱ> 玉匠所用石磬穿穴非非五介<70ㄱ> 非背強鐵十五介<87ㄱ> 非背刃伍介<98ㄴ>

非非는 '비비'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비비송곳'에 대응한다. 非背는 '비비]비배'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비비송곳'에 대응한다. 비비송곳은 자루를 두 손바닥으로 비벼서 구멍을 뚫는 송곳으로, 흔히 자루가 길며 축이 짧고 네모지다.

3.58 沙立門[사립문]

沙立門一隻<90ㄱ>

沙立門은 '사립문'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사립문'에 대응한다.

3.59 沙鉢[사발]

沙鉢五立 甫兒一竹 沙莫子三介 所羅二坐<63ㄱ>

沙鉢은 '사발'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사발'에 대응한다.

3.60 沙卜丁[사복뭇]

沙卜丁二介菊花等具<22ㄱ> 沙卜丁六介<82ㄴ>

沙卜丁은 '사복뭇'의 차자표기이다. '사복뭇'은 현대어 '사복뭇'에 대응한다. 가위다리나 부채 따위가 어긋매겨지는 곳에 꽃는, 뭇과 같은 물건을 이른다.

361 沙貼[사접]사접]

沙貼匙五介 大沙貼十立(63ㄱ)

沙貼은 '사접'사접'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사기대접'에 대응한다. '사기로 만든 대접'을 이른다.

362 貼匙[덥시]접시] 沙貼匙[사덥시]사접시]사접시]

沙貼匙五介 大沙貼十立(63ㄱ)

貼匙는 '접시(櫛子 접시<동해, 하:13>>접시'의 차자표기이다. 沙貼匙는 '사덥시]사접시]사접시'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사접시'에 대응한다. 사기로 만든 접시를 이른다.

363 沙缸[사항]

柒匠所用沙缸一沙鉢二立(71ㄱ)

沙缸은 '사항'의 차자표기로, 사기로 만든 항을 이른다.

364 索[새끼]

小索三巨里(64ㄱ)

索은 '새끼'의 차자표기이다.

365 槩[속·소]

槩次紅綿糸四錢(19ㄴ)

槩은 '속' 또는 '소' (槩 소 俗以茵褥裝毛曰 槩<新字典>(朝鮮俗字部))의 한국한자로, 요나 깔개 등의 안에 넣는 털이나 솜을 이른다.

366 山支[산지]

鍾石磬加莫金山支次高音鐵壹百貳拾介(92ㄱ)

山支는 '산지'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산지' 또는 '산지못'을 이른다. '비녀장'이라고도 한다. 이음이나 맞춤자리에 두 재목을 꿰뚫어 꽂아서 빠지지 않게 하는 나무쪽이나 나무못을 이른다.

3.67 𪛗音[살음]

小爐匠 𪛗音假家壹間(96ㄴ)

𪛗音은 '살음>살'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살'에 대응한다.

3.68 三甲所·參甲所[세겹바]

大三甲所四巨里...三甲所四巨里(63ㄱ-ㄴ) 紅綿糸三甲所三十二把(77ㄴ)
參甲所貳拾巨里(97ㄱ)

三甲所·參甲所는 '세겹바'의 차자표기로, '세 겹으로 된 바'를 이른다.

3.69 三太[삼태]

三太柎木三丹(89ㄴ)

三太는 '삼태'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삼태기'에 대응한다. 경기도방언에서 '삼태기'가 '삼태'로 실현되는데, 이를 이른다.

3.70 書道里[서도리]

書道里二介(86ㄴ)

書道里는 '서도리'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서돌'에 대응한다. '서돌'은 집을 짓는 데 중요한 재목인 서까래, 도리, 보, 기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3.71 西𪛗[서술·서슬]

西𪛗雜長木七巨里(90ㄱ)

西𪛗은 '서술' 또는 '서슬'의 차자표기이다. 표준어 '발비'에 대응하는 것이다. '발비'는 서까래 위에 산자를 얹고 알매흙이 새지 못하도록 덧대어 까는 잠살뱅이 나뭇조각을 이른다. 제주방언에 '발비'에 대응하는 '서슬'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72 石[섬] 斗[말] 升[되]

米一百八十六石七斗一升(76ㄱ)

石은 '섬'의 차자표기, 斗는 '말'의 차자표기, 升은 '되'의 차자표기이다.

3.73 所羅[소라·소래] 陶所羅[딜소라]질소라]

磨鏡匠所用中陶所羅六小陶所羅四(62ㄴ) 沙鉢五立 甫兒一竹 沙莫子三介
所羅二坐(63ㄱ) 陶所羅十介(83ㄱ)

所羅는 '소라' 또는 유사음 '소래'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소래기' 또는 '대야'를 이른다. '소래기'는 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으로, 독의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 제주방언에서는 '소래'가 '대야'의 뜻으로 쓰인다.

3.74 小心[쇼심]소심]

大小心中小心各四介小小心七介(90ㄴ)

小心은 '쇼힘'의 변음인 '쇼심'소심'의 차자표기로, '소의 힘줄'을 이른다.

3.75 所惡只[쇠야기]

所惡只次眞椽木二介(63ㄴ)

所惡只는 '쇠야기'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쇠기'에 대응한다. 중세어로는 '쇠야기'로 실현된다.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으로, 나무나 쇠의 아래쪽을 위쪽보다 얇거나 뾰족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所也只, 所阿只 등으로도 실현된다.

3.76 所湯[바탕]

合絲機壹坐 所入 所湯次 邊板貳尺(99ㄱ)

所湯은 '바탕'의 차자표기로, '물체의 뼈대나 틀을 이루는 부분' 또는 '그림, 글씨, 수(繡), 무늬 따위를 놓는 물체의 바닥'을 이른다.

3.77 束[뭇]

穀草貳百捌拾伍束<101ㄴ>

束은 '뭇'의 차자표기이다.

3.78 升[되] 습[흡]

燈油伍升玖合<101ㄴ>

升은 '되'의 차자표기이고, 습은 '흡'의 차자표기이다.

3.79 式[식]

磬家三十二件所入 每件青木各三尺式 內拱黃木各三尺式<19ㄱ>

式은 '식'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접사 '-식'에 대응한다.

3.80 漚[줄] 心漚[심줄] 鵝項鐵[거유목쇠]거위목쇠] 鴨項漚[올히목줄] 오리목줄] 注匠[줄장] 漚牛皮·注乙牛皮[줄우피]

大漚十四介 中漚十二介 小漚九介<85ㄴ> 漚次條所壹良衣<92ㄱ> 大心漚二介 中心漚二介 小心漚二介 小小心漚三介<86ㄱ> 大鵝項鐵元環排具各壹介<93ㄴ> 鴨項漚三介<86ㄴ> 鴨項漚貳介<98ㄴ> 注匠所用櫃子壹部…漚丁貳介 竹刀架只金各貳介<98ㄴ> 漚牛皮二條<17ㄱ> 注乙牛皮六條里用還<77ㄱ>

漚[줄] 漚은 '줄'의 차자표기이다. '줄'은 '노,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心漚은 '힘줄'의 변음인 '심줄'의 차자표기이다. 鵝項鐵은 '거유목쇠]거위목쇠'의 차자표기이다. 鵝는 '거유(鵝 거유 아<훈몽-초, 상:9>). 계유(鵝 계유 아<신합, 상:12>))거위'의 훈독자 표기이다. 鴨項漚은 '올히목줄]오리목줄'의 차자표기이다. 鴨은 '올히(鴨 올히 압<훈몽-초, 상:9><신합, 상:12>))오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注匠은 '줄장'의 차자표기로, '줄

장이'를 이른다. '줄'의 말음 'ㄴ'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각종 줄을 만드는 사람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鋸匠으로도 쓰인다. 鋸牛皮·注乙牛皮는 '줄우피' 또는 '줄쇠가죽'의 차자표기이다. '줄을 만드는 재료인 쇠가죽'을 이른다. 鋸丁[줄정] 鋸丁四介(86ㄴ) 鋸丁은 '줄정'의 차자표기이다. 돌면 따위에 줄을 내는 정을 이른다.

3.81 鴨項鐵[올히목쇠]오리목쇠]

鴨項鐵圓環具一介(20ㄴ) 大鴨項鐵二介(82ㄱ)

鴨項鐵는 '올히목쇠'오리목쇠'의 차자표기이다. 鴨은 '올히(鴨 올히 압<훈몽-초, 상:9><신합, 상:12>))오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3.82 涼板[양판]

玉匠所用鐵板三立…涼板足具八介(90ㄴ)

涼板은 '양판'의 차자표기이다. '양판'은 '대패질할 때 밑에 받쳐 놓는, 판판하고 길쭉한 나무판자'를 이른다.

3.82 於骨[얼골]

左右柱次中椽木二介 於骨小椽木二介(90ㄱ)

於骨은 '얼골'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문얼골' 또는 '문골'을 이른다. '얼골'은 '문얼골'이라고도 한다. '문골'은 창문이나 문짝을 달거나 끼울 수 있도록 문의 양옆과 위아래에 이어 댄 테두리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於乙骨로 실현된다.

3.83 於乙只[엷이]

架子於乙只次紅條所五良衣(73ㄱ) 於乙只는 '엷이'(현실음은 '엷기'이다)의 차자표기이다. '엷이'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겹을 새끼나 노끈 따위로 이리저리 싸서 엷는 일. 또는 그렇게 엷는 물건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선 𪛗只로도 실현된다.

3.84 五里木[오리목]

柄次小五里木半介<21ㄱ>

五里木은 '오리목'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오리목'에 대응한다. '오리목(-木)'은 가늘고 길게 켜 목재를 이른다.

3.85 要江[요강]

坐起時 所用地衣登每毛方席安息要江大也唾口<57ㄴ>

要江은 '요강'의 차자표기이다. '요강'은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으로, 늦쇠나 양은, 사기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다른 자료에서는 한자를 빌려 溺江으로도 표기된다.

3.86 龍舍音[용마름]용마름]

龍舍音穀草七束<90ㄱ>

龍舍音은 '용마름'용마름'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용마름'에 대응한다. 초가의 지붕마루에 덮는 'ㅅ' 자형으로 엮은 이엉을 이른다.

3.87 隅里[우리]

小爐匠 所用 浦土板貳部 每部 隅里腹板 并松板拾一立<91ㄱ>

隅里는 '우리'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울'에 대응한다. 속이 비고 위가 트인 물건의 가를 둘러싼 부분을 이른다.

3.88 月乃[돌니] 月乃莖[돌니가지] 月乃莫只[돌니막이·돌니막기]

朔鼓一坐...月乃莖三條 每條長二把式<24ㄱ> 月乃莖十一介內[八介長三把或三介長二把式]<78ㄴ> 月乃莫只次薄松板一立<19ㄴ>

月乃是 국역본에 보이는 '월내'가 아닌 '돌러'의 현실음 '돌니'의 한자차용표기이다. 月乃[돌니]는 현대어 '다리'에 대응한다. '두 사물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른다. 月乃莫只是 '돌니막기' 또는 '돌니막이'의 차자표기이다. '돌니'의 차자표기 月乃是 '돌러'의 차자표

기 月來에 대응하는 것이다. '다리 막이'를 이른다. 月乃莖은 '돌너가지'의 차자표기이다. '다리가지'를 이른다.

3.89 圍里[위리] 圍里鉄[위리쇠]

照燭一部所入 圍里鉄六介<20ㄱ> 建鼓一坐新造所入…圍里四次椶板各長各一尺八寸五分<22ㄴ>

圍里는 '위리' 또는 유사음 '우리'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울' 또는 방언 '우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속이 비고 위가 트인 물건의 가를 둘러싼 부분을 이른다. 圍里鉄은 '위리쇠'의 차자표기로, '울쇠'를 이른다.

3.90 耳只[귀기] 耳只匠[귀기장]

貴廳大旗手崔福老味亦以耳只匠今方付役是如乎<33ㄱ>

耳只는 '귀기' (耳只 귀기 注子也<行用吏文>)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구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기름, 술 같은 것을 뜰 때에 쓰는, 자루가 달린 기구를 이른다. 耳只匠는 '귀기장'의 차자표기로, 구기를 만드는 장인을 이른다.

3.91 印[끗]

柱次小條里木半介印<99ㄱ>

印은 '끗'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끝'에 대응한다.

3.92 引導[인도]

引導加兒各一<63ㄴ>

引導는 '인도'의 차자표기로, 근대어 '인도' (甧人 甧印 인도<물보, 잠적>), 현대어 '인두'에 대응하는 말이다.

3.93 蓆子[넙즈]

蓆子二<53ㄴ>

蓆子는 '넙즈' (蓆子 넙즈 印方席也 넙즈 仍子<古今歌曲>)의 차자표기

로, 현대어 ‘녁자’에 대응한다. ‘녁자’는 도장이 잘 찍히도록 밑에 받치는 폭신한 사슴 가죽을 이른다.

3.94 者朴只[자바기·자배기]

柒匠所用陶東海四 者朴只六 所羅一介<67ㄱ> 者朴只十一介<83ㄱ>

者朴只는 ‘자바기’ 또는 ‘자배기’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자배기’에 대응한다.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을 이른다.

3.95 自作[자작] 自作板[자작널]

自作板二立<17ㄱ>

自作은 ‘자작’의 차자표기로, ‘자작나무’를 이른다. 自作板은 ‘자작널’의 차자표기로, 자작나무로 된 널을 이른다.

3.96 長道里[장도리]

長道里一介<87ㄴ>

長道里는 ‘장도리’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장도리’ 또는 ‘노루발장도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못을 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이른다.

3.97 接朴只[접박기]

接朴只所入邊板伍立<96ㄴ>

接朴只는 ‘접박기’ 또는 ‘접박이’의 차자표기이다. 接朴只를 ‘붙박이’로 읽는 경우(황금연, 1997:165)도 있으나, ‘접박이’로 읽어야 한다.

3.98 丁·釘[못] 一寸五分丁[흔치닷푼못] 二寸丁[두치못] 二寸五分丁[두치닷푼못] 三寸丁[세치못] 三寸頭丁[세치머리못] 三寸丁[세치못] 四寸丁[네치못] 四寸頭丁[네치머리못] 七寸丁[일곱치못] 廣頭丁[넙대갈못] 擧勿丁·巨勿丁[거물못·거멀못]

朴只三寸丁四十介…二寸丁八十四介(21ㄴ) 一寸五分丁四百六十介 二寸丁一千二十五介 二寸五分丁一百七十二介 三寸頭丁六介 三寸丁八十六介 四寸丁一百三十介 四寸頭丁七十介 七寸丁四十介 大廣頭丁七百四十二介…大巨勿丁八十介(81ㄱ-ㄴ) 大巨勿丁八十介 中巨勿丁三十九介(81ㄴ) 大加莫金貳介 中舉勿丁柒介(99ㄴ)

丁과 釘은 '못'의 차자표기이다. 寸은 '치'의 차자표기로, 一寸(한치), 二寸(두치), 三寸(세치), 四寸(네치), 五寸(닷치) 등으로 쓰인다. 廣頭丁은 '넙대갈못' 또는 '대갈못'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대갈못' 또는 광두정에 대응한다. 舉勿丁·巨勿丁은 '거물못'·'거물못' 또는 '거멀못'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거멀못'에 대응하는 것이다. 나무그릇 등의 터진 데나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거멀장처럼 걸치어 박는 못을 이른다.

3.99 丁[정] 芻只丁[갈기정·괘이정] 古叱丁·串丁·串叱丁[긱정] 召乙釘·矚丁·召乙丁·召丁·造乙釘·琢釘[졸정] 朴乙釘·朴乙丁[박을정] 同串丁[동긱정] 刃丁[날정]

穿穴匠所用非背刃伍介…芻只丁肆介(98ㄴ) 石手所用小夢同壹 排地乃一古叱丁召乙丁各五(56ㄴ) 石手所用召乙丁五介 串叱丁八介(65ㄱ) 召乙丁四十二介 古叱丁二十五介…召乙丁一百九十介 串丁七十八介(84ㄴ) 石手所用召乙丁串丁各拾介(100ㄱ) 召乙釘二十五介(26ㄴ) 所謂琢釘多有磨削體小…琢釘十介(43ㄴ) 造乙釘七介朴乙釘十介(47ㄱ) 石手所用小夢同壹 排地乃一 古叱丁召乙丁各五(56ㄴ) 石手所用召乙丁五介 串叱丁八介(65ㄱ) 玉匠所用矚丁貳拾介(84ㄴ) 召丁伍拾介(94ㄴ) 石手所用召乙丁串丁各拾介(100ㄱ) 朴乙釘二十五介(26ㄱ) 造乙釘七介朴乙釘十介(47ㄱ) 朴乙丁三十五介(84ㄴ) 同串丁二介(87ㄱ) 同串丁貳介(98ㄴ) 刃丁一介(87ㄱ) 登子金刃丁各壹介(98ㄴ)

丁은 '정'의 음가자 표기이다. 芻只丁은 '갈기정' 또는 '괘이정'의 차자표기로, 갈이를 하는 정을 이른다. 古叱丁과 串丁은 '긱정'의 차자표기

이다.⁴⁾ 현대어 ‘꽃을정’에 대응하는 말이다. 어떤 물건에 쓰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는 정을 이른다. 召乙釘·𠄎丁·召乙丁·召丁·造乙釘 등은 ‘줄정’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줄정’에 대응한다. 召丁도 ‘줄정’의 차자표기인데, 음절 ‘줄’의 말음 ‘ㄹ’이 표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정’은 ‘들’을 다듬는 데 쓰는 쇠 연장으로, 네모꼴 또는 원기둥꼴인데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다. 朴乙釘·朴乙丁은 ‘박을정’의 차자표기로, 무엇을 박는 데 쓰는 정을 이른다. 同串丁은 ‘동꽃정’의 차자표기로, 둥글고 큰 꽃을정을 이른다.

3.100 條里[오리] 條里木[오리목] 條所[오리바]

架子於乙只次紅條所五良衣<73ㄱ> 注乙牛皮六條里用遷<77ㄱ> 長條里木柒介半 中條里木壹介 條里木貳介半<101ㄴ> 條所壹百參良衣[裁折用遷]<102ㄱ>

條里는 ‘오리’의 차자표기이다. ‘오리’는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條里木은 ‘오리목’의 차자표기이다로, 가늘고 길게 썬 목재를 이른다. 條所는 ‘오리바’의 차자표기로, 가늘고 길게 만든 바(주로 참바)를 이른다. 刃丁은 ‘줄정’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날정’에 대응하는 말이다. 날이 넓적하게 생긴 정을 이른다.

3.101 柱童子[기둥동자]기둥동자]

柱童子次楸木一尺式六片<19ㄴ>

4) 『한국한자어사전』 권1(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145, 745)에는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串 항목에서, 串丁과 串釘, 串吡丁 등은 모두 ‘꽃정’ 또는 ‘꽃질정’으로 읽고, ‘꼬치 정, 꼬챙이처럼 만든 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古 항목에서, 古吡丁은 ‘고질못’으로 읽고, ‘꽃을못’으로 설명하고 있다. 황금연(1997:)에서도 串丁을 ‘꽃못’으로 ‘꽃을못’의 뜻으로 보았으나, 필자는 앞의 표기 串丁과 串釘, 串吡丁, 古吡丁은 모두 ‘꽃정’의 차자표기로 본다.

柱童子는 '기둥동쪽>기둥동자'의 차자표기이다. 현대어 '동자기둥(童子-)'에 대응하는 말이다. 童子는 '아이'라는 뜻에 빗대어, 짧은 것을 이를 때 쓴다. '동자기둥'은 '들보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으로, 상량(上樑), 오량(五樑), 칠량(七樑) 따위를 받치는 것이다.

3.102 中方[중방] 中方木[중방목]

中方木壹介(93ㄴ)

中方은 '중방'의 차자표기이다. 中枋으로도 표기된다. '중방'은 '중인방(中引枋)'이라고도 하는데, '벽의 중간 높이에 건너지른 인방(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문이나 창 아래나 위로 가로지르는 나무로, 문짝의 아래위 틀과 나란하게 놓는다)'을 이른다.

3.103 地乃·之乃[지너] 火地乃[불지너>불지너] 火持來[불지너>불지너] 排地乃·排之乃[밀지너]

大地乃一介(17ㄱ) 排地乃二介(26ㄴ) 排地乃一介…排之乃二介(83ㄴ-84ㄴ)
火地乃汗尔赤各貳介(91ㄱ) 大中小執介火持來汗尔赤各二介(90ㄴ)

地乃·之乃是 '지너'이 차자표기로, '지러>지레'의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다. 火地乃是 '불지너>불지너'의 차자표기로, '불지러>불지레'의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다. 火持來는 '불지러>불지러>불지레'의 차자표기이다. '불지레'는 '부지갱이'를 이른다. 排地乃·排之乃是 '밀지너'의 차자표기이다. '밀지러'의 현실음을 반영한 것으로, 현대어 '밀지레'에 대응한다. '밀지레'는 무거운 물건을 밀칠 때 쓰는 지레를 이른다.

3.104 地方[지방] 下地方[알지방]

下地方八介次小五里木四介(21ㄱ)

地方은 '지방'의 차자표기이고, 下地方은 '알지방'의 차자표기이다. '지방'은 일각 대문의 심방 끝에 세우는 나무를 이른다.

3.105 執擧·執介[집게]

大執擧一介 小執擧一介<17ㄱ> 大執介三介 中執介二介 小執介三介<85ㄴ>

執擧는 '집게'의 불완전한 차자표기이다. '계'의 부음 'ㅣ'를 표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執介는 '집게'의 차자표기지만, 유사음 '집게'의 표기라 할 수 있다. '집게'는 '물건을 집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執箇도 확인된다.

3.106 他里介[타리개]

石手所用他里介次水靑木七介<67ㄴ>

他里介는 '타리개'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탕개'(비표준어로 '타룻개'도 있다.)에 대응한다. 물건의 동인 줄을 죄는 물건으로, 동인 줄의 중간에 비너장을 질러서 틀어 넘기면 줄이 줄어들게 된다. 다른 자료에서는 台里介, 撐介 등으로도 표기된다.

3.107 把[발·바리]

磬懸三甲所紅綿糸三十二介 每介一把式 鍾石磬結紅絲四良衣 每良衣二十把<19ㄱ>

把는 '발' 또는 '바리'의 차자표기이다. 새끼나 바, 줄 따위를 세는 단위로,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3.108 把子[바즈·바자] 草把子[새바즈·새바자]

草把子八立<90ㄱ> 把子는 '바즈'·'바자'의 차자표기이다. 草把子는 '새바즈·새바자'의 차자표기이다.⁵⁾ 把子는 중세어 '바조'(筥 바조 𦉳 바조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한국한자어사전』(3권:971)에는 草把子를 '풀바자'로 읽고, '풀이나 짚으로 엮어 만든 바자'의 차자표기로 보았다. 草飛乃·艸飛乃가 '새날'(새날래)의 차자표기로 쓰인 것과 같이, 草는 '풀'의 훈독자라기보다는 '새'의 훈독자로 보아야 한다.

리<훈몽-초, 중:4>, 근대어 ‘바즈’ (芭籬門 바즈 門<역해, 상:18>), 현대어 ‘바자’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받처럼 엮거나 결어서 만든 물건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쓴다.

3.109 浦土[개흙] 浦土板[개흙널]

浦土五태<80ㄴ> 小爐匠所用浦土板貳部<91ㄱ>

浦土는 ‘개흙’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개흙’에 대응한다. 갯바닥이나 늪 바닥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으로, 유기물이 뒤섞여 있어 거름으로도 쓴다. 浦土板은 ‘개흙널’의 차자표기로, ‘개흙을 이기는 데 쓰는 널빤지’를 이른다.

3.110 芦芦只鉄·蘆蘆只鉄[노로기쇠]

芦芦只鉄四介<86ㄴ> 蘆蘆只鉄肆介<95ㄱ>

蘆蘆只는 ‘노로기’의 한자차용표기이고, 蘆蘆只鉄은 ‘노로기쇠’의 차자표기이다. 芦芦只鉄에 쓰인 芦는 蘆(갈대 로)의 俗子, 鉄은 鐵의 속자로 쓰인 것이므로 芦芦只鉄도 ‘노로기쇠’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노로기쇠’노래기쇠’는 악기나 가구 등의 이음새에 대어 붙이는, 노래기 모양으로 만든 쇳조각을 이른다.

4. 미해독의 차자표기

다음의 것들은 차자표기로 보이나, 해독을 확실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설명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긴다.

橋板[] 橋板登床各伍介<92ㄱ>

白丁[] 白丁二介<87ㄱ>

岐鉅[] 岐鉅匠安福實<57ㄴ>

落目[] 落目四十介<82ㄱ>

背越乃[] 銅匠所用背越乃一介<62ㄱ>

召𠵼丁[] 上板朴只次二寸五分召𠵼丁五十介<65ㄴ>

速𦉳[] 玉匠所用速𦉳二良衣<55ㄴ>

圍排[] 圍排八面<90ㄱ>

衣[] 上下隅莫只次楸木長一尺二寸廣六寸 衣次多紅有紋紗二尺五寸<20ㄴ>

鍾骨[] 鍾骨三介<88ㄱ>

錯丁[] 錯丁六介<87ㄴ>

草丁[] 水丹𠵼赤九介 草丁一介 大心𦉳二介<86ㄱ>

把槽[] 木把槽[] 玉匠所用木把槽六部<56ㄱ>

5. 이두 표기

이두 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목록만 제시한다.

關內 / 關內乙用良 / 關是置有亦 / 教 / 教是 / 教是故 / 教是時
 教是置 / 教是後 / 內 / 段 / 段置 / 白活 / 并以 / 卜定 / 卜定是在
 卜定爲去乎 / 捧上 / 捧上事 / 捧上是在 / 捧上次 / 捧上向事
 捧上後 / 不得 / 不得-事 / 不得-是乎旡 / 不得上下 / 不得上下乙仍于
 龕 / 龕不喻 / 事 / 事關是置有亦 / 上使爲乎 / 上下 / 上下事
 上下事關是置有亦 / 上下爲乎旡 / 上下次 / 上項 / 是去乃 / 是去乙
 是去乎 / 是遣 / 是良置 / 是旡 / 是如可 / 是如爲去乎 / 是如爲臥乎所
 是如爲有臥乎所 / 是如乙仍于 / 是如乎 / 是喻 / 是在 / 是在 / 是在果
 是在如中 / 是置 / 是置有亦 / 是乎等以 / 是乎良置 / 是乎旡 / 是乎所
 是乎乙喻 / 是乎矣 / 安徐 / 安徐事 / 安徐爲白齊 / 良中 / 亦(여)
 亦關是置有亦 / 亦是乎等以 / 亦爲有等以 / 亦爲有旡 / 亦爲有臥乎所

亦爲有矣 / 了 / 爲去乎 / 爲旆 / 爲白去乎 / 爲白齊 / 爲白乎矣
 爲臥乎事 / 爲臥乎所 / 爲有等以 / 爲有旆 / 爲有知乎 / 爲有矣
 爲有在果 / 爲有置 / 爲在 / 爲只爲 / 爲乎 / 爲乎旆 / 爲乎矣
 乙良 / 乙用良 / 乙仍于 / 頤下事 / 這這 / 節 / 節該 / 除良
 直爲 / 次 / 帖子 / 追乎 / 向事

6. 마무리

지금까지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차자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의궤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은 물론 의궤류에 나타나는 차자표기 목록을 작성하여 해독하거나 의궤류에 대한 번역본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번역본에는 차자표기에 대한 해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해독과 번역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국역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甘佐非는 ‘감잡이’의 차자표기인데다가 현대의 국어사전류에 ‘감잡이’ 또는 ‘감잡이쇠’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본에는 당연히 ‘감잡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역본에는 甘佐非를 그냥 ‘감좌비’로 번역해 놓았다. 원문 ‘甘佐非丁具四介’〈20ㄱ〉은 ‘감잡이(못을 갖춘 것) 4개’ 정도로 번역해야 하는데, “감좌비와 못을 갖추어서 4개”, 원문 ‘甘佐非三十六介丁具’〈21ㄱ〉은 ‘감잡이 36개(못을 갖춘 것)’ 정도로 번역해야 하는데, “감좌비와 36개, 못을 갖춘다”(국역본 82쪽)와 같이 엉뚱하게 번역하는 등의 오류가 여럿 있다.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에 나타나는 고유어의 차자표기는 150여 개나 된다. 그 중에서 한테 묶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한 데 모아서 논의하였는데, 110항목 정도였다. 한편 15항목 정도는 차자표기로 보이는 미해독으로 남겨두었다.

앞으로 의궤류의 차자표기에 대한 해독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 중에 일부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되었으나, 일부는 전혀 수록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앞의 사전에 수록된 일부 차자표기의 경우 해독과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이러한 차자표기의 올바른 해독 작업이 완성되면 잊혀지거나 사라진 고유어를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궤류의 올바른 번역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2~1996), 『韓國漢字語辭典』 1~4.
- 박성훈(1998), 『단위어사전』, 민중서림.
- 송방송·고방자 외(2000), 『國譯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민속원.
- 오창명(1995), “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창명(1999), “중·고대국어의 올바른 이해 5”, 『교육제주』 103호.
- 오창명(2001), “物名의 借字表記 研究 1 : 『圓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 영주어문학회.
- 장기인(1998),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홍윤표·송기중·정광·송철의(1995),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황금연(1997),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